

# 기독교 수사학과 윤리

## -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론』을 중심으로 -

문영식(관동대 겸임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수사학의 전승들

1. 플라톤의 수사학
2.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3. 키케로의 수사학
4.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 III.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수사학

1. 수사학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적 수용
2.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언어의 선택과 활용
3. 기독교 수사학의 궁극적 목표

### IV. 기독교 변증과 윤리

1. 수사학과 윤리
2. 기독교 수사학과 윤리

### V. 나오는 말

---

• **ABSTRACT** •

---

Augustine accepted Ancient Greek and Rome's Rhetoric, he used it as a tool to protect a Christianity truth. The main purpose of Ancient Greek and Rome's Rhetoric is a persuasion through a speech. But the main focus of Augustine's rhetoric is how to deliver a Christianity truth and effectively communicate others.

He emphasize that Christianity teacher must use clear language and rich vocabulary and learn rhetorical principle and rule to express delicate language. But before all the rhetorical principle and rule, the more important thing is without ethic of life based on a Christianity truth, there is no communication with common people.

Today, the major reason why a Christianity truth is disregarded is not a lack of truth but loss of life ethic who cherish a Christianity truth.

This article focus on Augustine stress that in order to a Christianity truth communicate with common people, h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hetoric and Christianity teacher's life ethics.

Key words: Christianity Rhetoric, Ethic, Truth, Persuasion, Communication

##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서로 정보와 사유 그리고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의사전달과 이해과정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토론이나 회의를 통해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언어라는 상징체계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의사소통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축적해오면서 인류문화의 바탕을 이루어 왔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 간의 또는 집단 간의 의견을 소통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득이다. 현대사회의 구조가 많은 담론의 장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의 개진이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면서 설득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TV와 같은 공적인 담론의 장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그의 생각에 동의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 캠페인이나 CF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사상에 동참하거나 소비자를 매료시키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 되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설득은 현대사회의 대중을 움직이거나 현대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수사학의 주된 목표는 말을 통한 설득이다. 그렇지만 이 설득을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자의 윤리라 할 수 있다. 케네디는 (George Kennedy)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정과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어를 포함하는 신호의 체계를 통해서 전달된 감정과 사유의 고유한 에너지”<sup>1)</sup>라고 수사학을 정의한다. 이 정의는 수사학이 인간의 일반적인 활동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설득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말을 통한 설득에 대한 수사학은 고대 그리스 전통에 그 기원을 두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당시 중세 사회에서 수사학은 기독교와 이교도 사이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중세 사회에서 수사학의 기독교적 수용의 단초가 된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마니교도들, 도나투스학과, 그리고 펠라기우스 학파와의 논쟁을 통해 기독교 진리를 변증한다.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수사학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만일 아우구스티누스가 뛰어난 수사학자라할지라도 그가 윤리의식이 결여되었다면 기독교 변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고대부터 논의 되었던 수사학의 전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고대의 전승을 바탕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펼치는 수사학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진리를 설명하고 이교도들에게 진리를 설득시키는 기독교 변증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의 수사학은 윤리의식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오늘날 기독교 설교를 맡은 목회자들이 견지해야할 수사학의 방향과 윤리적 자세를 모색하고자 한다.

---

1) George Kennedy, translator's introduction to *Aristotle on Rhetoric : A Theory of Civic Discourse*, (Oxford University Press:1991), p.7.

## II. 수사학의 고대 전승들

### 1. 플라톤의 수사학

플라톤의 초기 저작 중 『고르기아스』편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폴로스와 고르기아스와의 논의를 통해 수사학에 대해 탐구해 나간다.

플라톤은 논쟁을 통해서 수사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사학은 좋은 것이며 칭찬받을만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고르기아스와 맥을 같이하여 폴로스는 수사학을 기술로 인정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기술의 범주로부터 요령의 범주를 구분하고, 기술은 인식의 범주이며 요령은 아침의 범주로 정의한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편을 통해 수사학과 소피스트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수사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계한다.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에 대한 플라톤의 지적은 수사학이 기술이 아니라 숙련이라는 것이다.<sup>2)</sup> 수사학은 인식이 수반된 기술이 아니라 숙련이기 때문에 아침하는 ‘화장술’, ‘요리술’처럼 요령의 범주에 속하여 무지한 많은 청중들에게 아부하고 유혹함으로써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생각하는 수사학은 무지한 청중들에게 아침하여 결국 청중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식에 기초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철학에 복무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고르기아스는 프로타고라스와 더불어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자로서 소피스트 가운데 가장 말솜씨가 뛰어난 자이다. 그는 수사학은 말(logos-speech)<sup>3)</sup>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말한다. 수사학

2) C. H. Kahn, "Drama and Dialectic in to Plato's Gorgias", Socrates : Critical Assessments 3, ed. by William J. Prior, (London and New York, 1996) p.60.

은 법정에서 말을 가지고 배심원들을 설득하고, 공회에서 공회원들을, 민회에서 민회원들을, 그리고 정치적인 모임에서 설득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고르기아스가 내리는 수사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사학은 로고스에 관한 것이다.<sup>4)</sup>
- 2) 수사학은 로고스를 통해서 설득하는 힘이다.<sup>5)</sup>
- 3) 수사학은 설득을 낳는 장인이다.<sup>6)</sup>

고르기아스는 소크라테스가 학문으로서 수사학이 무엇에 관여하는지를 묻자 로고스에 관여(*peri logus*)한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의 대상은 로고스이고 수사학은 로고스에 관여하는 학문이며 수사학은 로고스를 통해서 설득의 장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고르기아스의 정의에 대해 논박을 한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수사학이 로고스를 통한 설득의 장인이라면, 설득에는 두 가지, 즉 앎이 없이 믿음을 주는 설득과 앎을 낳는 설득이 있어야 하는데 고르기아스가 말하는 수사학은 믿음을 주긴 하지만 정의와 부정에 대한 진정한 앎을 낳는 그런 설득이 아니라고 논박을 한다. 소크라테스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지한 군중들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설득력이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고르기아스의 관점에서 수사학은 지식이 없는 군중들에게 자신이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적 기술만 있으면 다른 기술을 배울 필요조차 없게 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

3) Terence Irwin, *Gorgias*, (Oxford: Clarendon Press, 1982), 449e1(이하 『고르기아스』로 함).

4) 『고르기아스』, 449e1.

5) 『고르기아스』, 452e1.

6) 『고르기아스』, 453a3.

가 보기에 수사학에서 말은 정의와 부정과 관련된 말이다. 그렇다면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로고스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부정과 관계되는 것이고, 인간의 일들과 가장 관계가 있는 일이라는 소크라테스는 정의 내린다.<sup>7)</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소피스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수사학과 플라톤이 꿈꾸는 수사학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피스트들의 주된 관심이 인식과 진리가 아니라 개연적인 것에 놓여져 있었다면, 플라톤은 개연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보다는 확고부동하고 객관적인 것, 억견이 아니라 진리, 가상이 아니라 존재를 추구했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의 그러한 모습을 뛰어넘어 수사학의 전제를 문제화하고 수사학의 자기반성을 통해 철학에 복무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8)</sup> 철학적인 방식으로 파악된 이성적 또는 합리적인 것과 참된 것을 인간 삶의 현실과 설득력 있게 중재하는 수사학을 염두 해 두고 있었다.<sup>9)</sup>

## 2.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 대한 학문적인 위상을 정립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소피스트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수사학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처럼 수사학을 아첨술이나 조작술 또는 사이비기술이라고 폄하하지도 않았다. 그는 수사학과 다른 과학들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수사학에 대한 학적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 그는 수사학은 변증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역설한다. 두 학문의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사학을 변증술의 “상대항”<sup>10)</sup>으로 그리고 변증술의

7) 『고르기아스』, 461e5.

8) 한석환, 「플라톤과 수사학」, (『철학』: 75,2003), pp.81~83.

9)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철학적 기초」, (『철학』 74,2003), p.28.

10) Geogre A. Kennedy, *Aristotle on Rhetoric*,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부산물”<sup>11)</sup>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증술의 “일부이며 닮았다”고 말한다.<sup>12)</sup>

수사학과 변증술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사학과 변증술은 특정한 과학의 목적이 아니면서 명확한 주제에 속하지 않는 것들과 관계된다.
- (2) 수사학과 변증술은 의견(endoxa)에 의지한다.
- (3) 수사학과 변증술은 확실한 과학의 원칙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 (4) 수사학과 변증술은 동일한 연역과 귀납의 이론에 의지한다.
- (5) 수사학과 변증술은 토포스들(topoi)을 이용한다.

수사학이 변증술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학으로써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수사학은 기술(techne)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진짜 기술들은 그들의 특정한 주제들에 의해 규정되지만, 수사학은 명확한 주제와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술과 구두 만들기는 건강과 신발로써 그들의 생산물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변증술이 뚜렷한 주제들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적 방법에 의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변증술은 어떤 주장이 타당하며, 다른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수사학이 변증술의 상대항이라는 말은 변증술이 수사학에 기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학이 변증술의 일부임을 말하는 과정을 통해 수사학이 학문으로

---

1991), 1354a1(이하 『수사학』으로 함).

11) 『수사학』, 1356a25-27.

12) 『수사학』, 1359b9-12.

정초되며 더 나아가 어느 학문이나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논점의 증명은 공통적인 것이므로 모든 학문이 수사학과 변증술에 관계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즉 수사학과 변증술은 모든 학문에 관계되는 갖가지 논변들에 대해 관계하는 것이다.

### 3. 키케로의 수사학

수사학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로 전해졌다. 로마의 수사학은 전통적으로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에 의해 주도되었다. 로마의 수사학은 정치학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사학은 웅변술로 대표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로마에서는 정치연설이나 법정에서의 변론에 효과를 올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수사학이 로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화와 본격적으로 접촉을 시작할 당시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였기 때문에 그리스의 수사학 전통은 로마사회에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공화정의 정치가들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연설능력을 필요로 하였다. 원로원과 민회의 설득을 통한 국정 운영,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변론, 출정하는 군인들의 사기고무 등 현실 정치의 여러 면에서 수사학의 연마는 정치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

또한 제정시대에서도 수사학은 매우 중요했다. 광대한 제국의 효율적 통치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관료의 배출을 필요로 하였고, 관료의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실용적 지식이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판단하고 대처하며, 또한 호소력 있는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의 개발에 가장 적절했던 수사학의 중요성은 여전히 고수되었다.

무엇보다도 수사학에 대한 키케로의 공헌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20세를 전후로 『발견론』을 썼고, 그 후 『연설가에 대하여』, 『브루

투스』, 『연설가』, 『연설의 부분에 대하여』, 『최상의 연설에 대하여』, 『토포스』등을 집필함으로써 수사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머피는 그 중 『발견론』과 『토포스』는 중세 전반기에 그리고 『연설가에 대하여』는 중세 말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sup>13)</sup> 키케로는 『발견론』 제1권에서 수사학을 기술의 규칙에 기초한 능변을 다루는 정치학의 한 분야로 정의한다. 능변은 정치학의 가지이기 때문에 능변가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고 인간 행위의 폭 넓은 지식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sup>14)</sup>이러한 정의를 볼 때 능변가는 수사학뿐만 아니라 철학에 통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연설의 부분에 대하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수사학적 체계와 구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수사학의 분야는 능변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고유한 힘과 연설 부분 그리고 문제 제기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능변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고유한 능력은 『발견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발견, 배치, 표현, 연기, 기억이다.<sup>15)</sup> 연설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두 부분은 능변가 다루는 사안을 ‘사실 기술’과 ‘논증’을 통해 드러내주고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설을 통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작하는 말과 맺는말이다. 문제 제기는 연설의 설득력을 위해 요긴한 부분이다. 능변가는 연설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다루는 사안을 일반 조항에서 특수 조항으로 또는 특수 조항에서 일반 조항으로 논의를 확대하거나 좁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루는 것이 문제 제기이다. 그러나 키케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루는 능변가는 논의 주제와 주제를

13) James J. Murphy, *Rhetoric in the Middle Ages*, (Berkely·Los Angeles·Lond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9.

14) H. Rackham, M, A, *De Oratore*, (Cambridge·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 64.

15) 연설가의 다섯 가지 고유한 능력은 고유하게 키케로가 주장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설가의 다섯 가지 과제에서 주장하고 있다.

다를 수 있는 능력을 논리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키케로는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수사학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수사학에 관한 로마의 이론은 92년경에 기록된 퀸틸리아누스의 『웅변가 교육』(Institutio oratoria)이라는 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퀸틸리아누스는 이상적인 연설가의 교육을 위해서 문법적이고 수사학적인 훈련에 기초한 완전한 체계를 제안했다. 모두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연설가의 일반적인 교육, 즉 예비 교육이다. 두 번째는 수사학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으며, 세 번째는 문장의 구상과 창작에 관해 그리고 암송이나 발음 등 웅변술에 관해 논하였으며, 마지막은 이상적인 연설가에 대한 주목으로 장식한다. 퀸틸리아누스가 논거의 발견, 배열 그리고 연기와 기억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키케로와 일치한다. 그러나 머피의 주장처럼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이 새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가장 의미 있는 공헌은 이상적인 연설가를 위해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규정했다는 데 있다.<sup>16)</sup>

그는 연설가의 교육은 요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람에서 들려오는 부모나 유모의 연설은 아이에게 모방을 위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먼저 글자를 배워야만 한다. 가정교육을 마친 7~8세의 아동들은 글자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내져 이곳에서 약 12세가 될 때까지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배운다. 이 시기에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읽는 것을 배우자마자 쉽게 쓰는 것을 배울 것이다. 12세가 된 어린이들은 문학 교육과

16) James J. Murphy, 앞의 책, p.22.

수사 교육을 받는다. 교사에게 먼저 문법의 정확성과 시의 해석을 배워야만 한다. 교사들은 시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고 나중에 그는 학생들에게 시에 대한 논평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솝 우화와 같은 책들을 의역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작문을 공부한다. 그리고 나서 경구를 쓰고 도덕적인 글들을 쓰고 성격 묘사로 발전해 나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모방에 의해 먼저 배우고 개인적인 발견으로 진행한다. 15세가 된 학생들은 수사학자에게 보내져 18~19세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문법학과 수사학은 분리되어 있다. 문법은 정확한 담론의 학문과 시들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학은 말 잘하는 기술이고 그 목적은 행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문법은 운문에서 운문으로 산문에서 산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수사학은 엄밀하고 정확한 문법적인 개념을 넘어선다. 수사학자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담론이 믿을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 힘을 가르친다. 또한 칭찬과 비교 그리고 일반적인 사안과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안들에 대한 훈련을 맡는다. 수사학은 주로 연설 발견과 표현의 완전한 체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대의 수사학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어조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그리고 로마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용적인 어조를 지닌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의 “키케로주의적” 수사학이다. 이러한 고대의 수사학적인 전승들은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책 『기독교 교육론』을 통해서 진리의 소통과 효과적인 전달을 하려는 기독교적 수사학을 주장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수사학

#### 1. 수사학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적 수용

히포(Hippo)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교회 교부들 중에 기독교 신학 형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는 수사학자로서 수사적 전통에 의지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그 반대자들과의 논쟁을 하는데 앞장섰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은 카르타고의 수사학교에서 연구했던 키케로의 저작들에 기초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시 수사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제2의 소피스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칼빈 트룹(Calvin Troup)은 이 수사 운동에 대해 “제2의 소피스트는 말투와 문체와 장식에 약간 기여했을 뿐 본질에 주의하지 않았으며 4세기 로마 학교를 지배했다”고 주장했다.<sup>17)</sup>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sup>18)</sup>에서 수사학을 공격할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수사학의 소피스트적 모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코 실제로는 수사학자로서 수사학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제2의 소피스트의 오용을 거절한 것이다”라고 칼빈 트룹은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의 전통이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계에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독교로의 개종 후에 교회 안에서의 로마 수사학 사용의 가능성과 씨름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탁월한 진리에 대한 봉사에 사용될 수 있는 즉, 그의 경우에 성서의 진리에 봉사할 수 있는 수사학을 탐구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사는 일차적으로 두 가지 임무가 있다고 믿

17) James A. Herrick, *The History and Theory of Rhetoric*, (Hope College, 2001), p.125.

18) 『고백록』, 4, 2.

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깨달은 진리와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공격 받았을 때 진리를 변호해야만 한다. 수사학은 이교적 기원과 빈발하는 오용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 각각의 성취에 있어서 기독교 교사를 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학의 고대 이론과 진리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 이해를 조화시켜야만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질서이며 동시에 진리의 원천이다. 이것은 기독교 수사가에게 어려운 문제를 부여한다.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언어로 충분히 묘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의 매개물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표현하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때 자신이 이탈리아 학교에서 가르쳤던 고전 수사학의 원천들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표현하는 수사적 능력을 창조하는 기독교적 목적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수사학은 성서 안에서 신성한 진리를 발견하며, 이 진리를 회중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교사를 돕는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가 느꼈던 기독교 교사로서의 딜레마 즉, 무한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서 유한한 수사학으로 다루어야 하는 기독교 교사의 딜레마를 해결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사로서 두 번째 딜레마에 직면한다. 그는 성직자와 후에 주교로서의 자신의 교육적 과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수사학을 발견했지만, 그는 전통적인 수사 전통이 많은 점에서 기독교 원리와 일치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것은 키케로와 같은 이교도에 의해 발전된 기술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확실하지 않은 진리를 겨냥한 것이며 그리고 때때로 말의 속임수에 의한 기술이었던 것

이다.

따라서 수사학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두 번째 딜레마를 안겨 주었다. 수사학은 이교도를 논박하며, 그 자신의 회중을 가르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심적이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술이기도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딜레마를 수사학이 오직 불신앙의 배열이 아님이 틀림없다는 추론을 통하여 해결했다. 더욱이 성서 자체는 기독교인을 향한 웅변의 모델인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수사학에 관한 그의 매우 중요한 작품 『기독교 교육론』에서 다루었다. 이것은 키케로의 『De Oratore』와 깊게 연관이 있는 작품이다. 머피(James J. Murphy)는 『기독교 교육론』을 “고대에서 중세로 잇는 다리”라고 말했다. 머피의 평가는 유럽의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 기독교 작가들이 직면한 딜레마 즉, 이교 문화와 신앙 사이의 많은 딜레마를 다루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다. 머피는 그 딜레마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론』은 교회가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키케로의 수사학을 사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강하게 논쟁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일 이교도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사학을 사용할 수 있다면 왜 기독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하는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수사학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이교도 소피스트들이 투박한 이야기의 집합이라고 비웃었던 성서가 키케로에 의해서 강조된 세 문체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어떻게 말하고 쓸 것인가를 배우는 수단으로서 좋은 모델에 대한 연구를 주장한다.”<sup>19)</sup>

19) James J. Murphy, *A Synoptic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New York: Random House, 1972), p.183.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수사적 이론에서 유용한 것을 사용하도록 교회에 요구한다. 그러나 그는 교육이 로마 수사학의 조직적 성격을 배우는 데 그칠 것에 걱정했다.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각에서의 교육은 ‘수사적 꾸밈이나 거짓된 장식’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있다. 수사학이 이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양면성을 아우구스티누스는 해결해야만 했다. 이것은 고대 수사학에 대한 기독교적 연구의 승인을 의미한다.

## 2.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언어의 선택과 활용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로고스이다. 논증의 원리에 맞는 연설을 할 때 청중들이 궁극적으로 설득되는 것이다.<sup>20)</sup> 청중을 대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의 유용하기를 바랐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은 이런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루는 사안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진리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수사학은 수사학의 기술을 통하여 기독교적 진리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말하며 또는 허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변호하거나 진리로 설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은 기독교적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진리 혹은 사실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변증가

---

20) 『수사학』, 1356a3.

로서 그는 성서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식된 진리를 다른 사람과 소통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만일 성경의 해설자이며 바른 신앙의 옹호자이며 거짓을 반대하는 사람 이라면 효과적인 언어의 활용을 통해서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설득시켜야 하며 거짓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분발시키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알려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도 그 진리를 더욱 잘 가르치고 그 진리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 진리로 인해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언변의 능력과 효과적인 전달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풍부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어휘들의 수식을 풍부히 이용하는 치밀한 언어 구사를 위해 수사학의 원리와 법칙들을 통해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만일 자기의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성서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풍부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sup>21)</sup> 더 나아가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도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자 해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sup>22)</sup> 설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말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말이 청중에게 이해되는 것은 한 사람이나 여럿과 나누는 대화를 할 때뿐만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을 통해서도 매우 강조되어야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말을 할 때는 명료하게 해야 하며 분명하되 천박하지 않게 말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그의 가장 강조점은 언어의 명료성에 있다는 것이다.<sup>24)</sup> 진리가 아무리 이해하

21) John J. Cavigan, *Saint Augustine's Christian Instruction*(Washington, D. 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5) 4, V8.(이하 『기독교 교육론』으로 함).

22) 『기독교 교육론』, 4, IV6.

23) 그의 저서 『변증론』에서는 변증론은 “말 잘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즉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언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떤 형식이든 대화를 통해서 남들에게 이해를 시켜야한다면 가르치는 사람은 얼마나 명료하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을 하는 사람의 목표는 듣는 이로 하여금 정확히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고자 했지만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럴 경우 서로간의 소통보다는 단절과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이루기 위해 명료하고 명백한 언어를 사용해야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사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가르침이라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명료함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듣는 사람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지 간에 고상한 언어의 사용보다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유려한 언어의 구사는 소수의 지극히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통이 될 수 있을 지라도 많은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은 바를 드러내야 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위대한 진리이랄지라도 그리고 잘 꾸며지고 수식된 진리라 할지라도 듣는 이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흥미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런 전달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3. 기독교 수사학의 궁극적 목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수사학은 명료한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소통의 수사학을 의미한다. 듣는 이에게 지루함을 주거나 단순하고 일시적인 흥미를 끌기 위한 수사학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듣는 이에게 기쁨과 감동

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설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득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먼저 가르쳐야 한다.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언변에 의한 것도 아니며 잘 꾸며진 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말하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듣는 이가 무엇을 해야 할 바를 모른다면 진리의 제시를 통해 먼저 가르쳐야 한다. 만일 할 일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행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던 바를 행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야 할 바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둘째로는 진리의 제시를 통해 듣는 이가 기뻐하고 매료되어야 한다. 듣는 이가 기뻐하고 매료되었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해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 것들에 대해서 깊은 마음의 공감을 가지게 하는 것, 즉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설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감동과 설득으로 인해 실제로 행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설득의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의 두 단계보다는 좀 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기독교 교사가 실행에 옮겨야만 하는 것을 설득시킬 때 교육하기 위해서 단지 가르치는 것으로 안 된다. 그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정복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증명에 의해 고백을 했고 매력적인 문체를 첨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장중한 언변, 곧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설복시키는 일이 남는다.”<sup>25)</sup>

아무리 진리를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듣는 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말하는 바가 진리임을 설득시키는 일에 실패한 것이다. 또한 듣는 이에 귀에 감화력을 주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매우 신중하고도 장엄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의 궁극적인 설득은 이 세 단계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이루어진다.

## IV. 기독교 수사학과 윤리

### 1. 수사학과 윤리

기독교의 진리가 탁월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수사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설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연설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설득을 위해 윤리의 문제는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설득을 위한 대중 연설은 세 가지로 요소로 구성된다. 즉 연설들에서 나타나는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연설자의 인품(ethos)에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중의 감정(pathos)의 상태이고, 마지막은 논증자체(logos)라 할 수 있다.<sup>26)</sup> 연설자의 인품은 의심은 되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 특히

25) 『기독교 교육론』, 4, XIII29.

26) 『수사학』, 1, 2, 1356a1-6.

중요하다. 연설가가 신뢰할 수 있게 나타나면 청중은 그 진술이 그 믿을 만한 연설가가 진실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으로써 제2의 지시 판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렇다면 연설가는 어떻게 신뢰할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은 실천적 지성, 덕스러운 성품, 그리고 선한 의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연설가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도 나타내지 못했다면, 청중은 그가 모든 것에 대해 좋은 충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연설가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의 제언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퀸틸리아누스 이상적인 웅변가를 꿈꾸고 있다. 그가 말하는 이상적인 웅변가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의 설득을 위한 세 가지 요소는 말하는 사람의 인품(ethos), 청중의 감정(pathos) 그리고 연설 자체(logos)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퀸틸리아누스 역시 말하는 사람의 인품을 가장 중시한다. 웅변가가 연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설득에 있다면 청중들이 비록 설득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웅변가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상적인 연설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웅변가의 덕목으로 도덕성을 으뜸으로 하는 이유는 당대의 형식과 기교에 빠져 재치와 말장난으로 일관되던 수사교육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퀸틸리아누스는 체계적인 수사교육을 통해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으로서 웅변가를 양성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웅변가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웅변가에게는 학문과 능변의 재능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도 요구된다. 퀸틸리아누스의 강조하는 도덕성으로 무장한 로마 시민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양성된 웅변가는 시민으로서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도시를 지배하고 도시를 유지할 수 있

는 사람이다. 퀸틸리아누스의 믿음은 도시의 연설가는 말하는 훈련과 성품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연설가에게 도덕적 정직함을 요구하는 민감성이다. 이것이 고대의 수사학과 구별하는 퀸틸리아누스의 공헌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 2. 기독교 수사학과 윤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사학에서 윤리, 즉 도덕적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 퀸틸리아누스가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저작들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의 일관성은 말을 통한 연설보다 설득에 있어서 더 무게감이 있다.<sup>28)</sup> 단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상황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참된 진리를 설교하거나 설교문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와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파우스투스와의 만남을 통해 그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그가 왔을 때 빠르게 그는 유쾌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말쑥하게 차려 입은 사환이 값비싼 술잔만을 나에게 준들 어떻게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그러므로 그러한 말들이 더 잘 표현되었다고 해서 나에게 더 나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웅변적이라고 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

27) James J. Murphy, *A Synoptic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New York: Random House, 1972), p.157.

28) George A. Kennedy,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270.

우아하고, 그 언어가 유창하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지혜로운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sup>29)</sup>

파우스투스와의 만남은 그가 마니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파우스투스와의 만남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득력은 언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파우스투스는 진리가 아닌 것을 수사적 기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 요소는 언변에 있지 않고 오히려 진리 자체에 있고, 그 진리에 일치하는 훌륭한 삶에 있다고 주장한다.<sup>30)</sup>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진리는 신을 의미하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 자체인 신을 향유하는 데 있다. 신을 향유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다. 이러한 최고의 선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결정한다.<sup>31)</sup> 아우구스티누스 윤리학의 핵심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최고선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최고선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제공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철학의 행복의 윤리학을 차용한다.<sup>32)</sup> 그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탐구한다. 그러나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학과처럼 행복을 쾌락이나 즐거움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행복은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지혜(sapientia)를 수반해야 하며 이것을 잘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본성은 이성과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냐에 따라 드러난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인간은 그의 본성의 실현을 위해서 불완전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한 진리 자체인 신을 소유

29) 『고백록』, 5, 6, 10.

30) 『기독교 교육론』, 4, XXIX.

31) David Furley, *From Aristotle to Augustine*, London & New York, 1999, p.398.

32) *ibid.*, 398.

해야만 한다.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힘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인간다운 덕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변증가이며 교사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인 신을 사랑하고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지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설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 교회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의해 기독교의 주된 진리들이 가르쳐지고 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성도들 사이의 소통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일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수사학적인 언어의 명쾌함과 선명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점점 목회자의 권위와 신뢰는 상실되고 있다. 성적탈선, 금전문제, 교회세습의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서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리에 수궁하는 대중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과 실제 그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중을 향해서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며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자의 모습이 먼저 감동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언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의 삶의 윤리이다. 설교자의 인격과 삶의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떠한 가르침도 기독교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가 현대 사회의 많은 대중과 더 활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윤리적 삶이 기독교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 V. 나오는 말

기독교 교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의 변증과 수호를 위해 수사학을 사용했다. 비록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이 기독교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그 기술에서 발견했지만, 그는 또한 로마 수사학을 기독교적 진리를 위해 봉사하는 데 크게 활용을 했다. 수사학에 대한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양의성(兩義性)은 그가 수사적 전통에 반영된 이교적인 그리스와 로마 학문유산과 서구에서의 신생 기독교 사이의 긴장을 성공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은 기독교 진리에 바탕을 두고 이교도들의 진리에 대한 공격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설득을 시키는 기독교 변론의 성격을 띠었다. “연설가는 가르치며, 즐겁게 하며 설득하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키케로의 연설가의 3대 목표를 기초로 해서 많은 이교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통해 이교도들 마음을 즐겁게 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에 그의 기독교 수사학의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 수사학자 또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진리에 기초한 삶의 탁월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기독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자세는 진리와 대중 사이의 소통을 막는 장애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의 진리가 부족해서 소통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윤리의 상실이 소통의 장애가 된 것이다. 기독교가 현대 사회의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와 일치하는 삶의 탁월한 도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ugustinus, *De Dialectica* ed. by J. Pinborg & tran. and notes by B. D. Jackson, D. Reidel, 1975.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Nuova Agostiniana, Citta` Nuova Editrice, Roma, 1970.
- \_\_\_\_\_, *Against the Academicians*, The Teacher,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by Peter King,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5.
- \_\_\_\_\_, *Confessiones*, The Loeb Classical Library, 1912.
- \_\_\_\_\_, "Christian Instruction"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 Augustine*, v2, The Catholic of America Press, Washington D. C, 1985.
- Aristotle, *The Art of Rhetoric*, The Loeb Classical Library, Harvard, 1926.
- Cicero, 『*De Oratore*』, The Loeb Classical Library, 1967.
- Bourke, V. J, *The Essential Augustine: selected and with commentary*, Hackett P. 4th.printing, 1983.
- Craig, R. S, *Rhetoric & Human Consciousnes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2003.
- Daley, L. C, *The Works of St. Augustine*, New York : Monarch Press, 1965.
- Herrick, J. A, *The History and Theory of Rhetoric*, Hope College, 2001.
- Jackson, B.D(ED), *De Dialectica*, Reidel Publishing Company.
- Marrou, H, St, Augustine and his influence through the ages, London : Longmans, 1964.
- Murphy, J. J(ed), *A Synoptic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Random House, New York, 1972.
- \_\_\_\_\_, (ed), *Renaissance Eloqu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1983.
- \_\_\_\_\_, *Rhetoric in the Middle Ag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1974.

Pope, H, *Saint Augustine of Hippo*, Westminster : the Newman Press, 1949.

Rist, J. M., *Augustine: Ancient thought baptized*, Cambridge, 1994.

김종흡 역, 『기독교 교육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서울, 1992.

\_\_\_\_\_, 『삼위일체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서울, 2004.

성 염 역, 『그리스도교 교양』, 분도 출판사, 경북, 1989.

\_\_\_\_\_, 『자유 의지론』, 분도 출판사, 경북, 1998.

\_\_\_\_\_, 『참된 종교』, 분도 출판사, 경북, 1989.

성한용 역, 『고백록』,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2005.

케리 윌스 저, 안인희 역, 『성 아우구스티누스』, 푸른 숲, 경기, 2005.

게르트 워딩 저, 박성철 역, 『고전수사학』, 동문선 현대신서, 서울, 2003.

로이 배튼하우스 편, 현재규 역,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스찬다이제스트, 경기, 1994.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광사, 서울, 1996.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93.

백코코 엮음, 문시영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광사, 서울, 1998.

이석우, 『아우구스티누스』, 민음사, 서울, 1995.

양명수, 『어거스틴의 인식론』, 한들출판사, 서울, 1999.

주영흡,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학지사, 서울, 2007.

키케로 저, 안재원 역, 『수사학』, 도서출판 길, 서울, 2006.

필립 샤프 저, 차종순 역, 『어거스틴의 은총론 1~4권』, 한국장로교출판사, 서울, 2002.

헨리 채드워 저, 김승철 역, 『아우구스티누스』, 시공사, 서울, 2001.

논문투고일: 2008. 4. 30

심사개시일: 2008. 5. 29

심사완료일: 2008. 6. 9